



기독교대한감리회

청파교회

교회세운날 1908.5.1

너희도 서로
남의 방을
씻기 주어야 한다.

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
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
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

주 일 낮 예 배 순 서

【 부활절 마지막 주 】 인도 1부 : 김재홍 목사
 (2부 선찬양: 301. 지금까지 지내온 것) 2부 : 이재훈 목사

- 전 주 반주자
- 임재의 기원 626.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(x3) 다 함께
- 예배로의 부름 김기석 목사
- ▲ 경배의 찬송 27.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 함께
- ▲ 공동기도 다 함께

자비하신 하나님, 평범한 일상을 통해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선물 같은 삶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. 어떤 날은 기쁘고 설레지만 또 어떤 날은 무료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. 주님, 어떠한 삶의 순간에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. 고난 없는 삶을 원하지만, 위기의 순간이 곧 성숙을 위한 주님의 초대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.

주님,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자 승천주일입니다.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낸 주님은 어둠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밝은 빛으로 부활하셨습니다. 주님, 하늘에 오르신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.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,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- ▲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
- ▲ 위로의 말씀 사 26:3 인도자
- ▲ 교 독 문 82. 빌립보서 2장 다 함께
- ▲ 영 광 송 2.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
- 2부 대표기도 안종일 장로
- 2부 응 답 송 찬양대
- 2부 찬 양 88. 내 진정 사모하는 다 함께
- ▲ 성경봉독 왕하 2:9~14 1부:인도자/2부:오자영 권사

“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” 봉 독 자
 “하나님, 감사합니다” 다 합 께

찬 양	I. 순전한 믿음	마중물 찬양대
	II. 그래도	청과 찬양대
말 씀	이어 달리기	김기석 목사
거둠 기도		다 함께
2부 찬 양	336. 환난과 핍박 중에도	다 함께
▲ 봉 헌	317. 내 주 예수 주신 은혜(1:5절)	다 함께
▲ 봉헌기도		김기석 목사
공동체 소식		김기석 목사
▲ 평화의 인사		다 함께
▲ 보냄의 말씀		다 함께
<p>인 도 자 : 교우 여러분,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.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. 불평을 그치십시오. 생명을 부여 받은 자답게 당당하고, 씩씩하게 살아가십시오.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. 삶의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십시오. 자비하신 주님이 넉넉한 은혜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.</p> <p>다 함 계 : 아멘. 삶의 어려움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낸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. 불평을 그치겠습니다.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.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. 선한 싸움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. 주님,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. 아멘.</p>		
▲ 찬 양	635. 주의 기도	다 함께
▲ 축 복		김기석 목사

	설교	기도	성경봉독	인도
다음주	1부 김기석	공동기도	인도자	이범석
	2부 김기석	김영호	서동우	김재홍

 청과교회 페이스북 <https://www.facebook.com/chungpachurch/>

 청과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-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'예배실황' 클릭

 청과교회 카카오톡 채널 : 친구검색창에 '청과교회' 검색 후 채널 추가

※ 헌금계좌 : 새마을금고 9002-1751-3375-3 (예금주 : 청과교회)

